



후원회 소식

통권 210호

발행일 2009. 3. 19 | 발행인 권오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PSI 참여는 대북 침략 선제 조건이다.



▲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공동집회'에서

- 통일뉴스사진제공-

· 목 차 ·

4월의 시 · 푸른소나무 진판 · 2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4 / 기고 · 잠엄한 선사 임미영 · 8 / 성명서 · 12 / 회원마당 견미라 · 14 / 감옥에서 온 편지 · 장민호, 박경식 · 16 / 산행기 유영호 · 2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8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푸른 소나무

진관 | 시인

푸른 소나무 가지사이로

보름달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밤,

처참하게 죽어갔던 용산 참사의 영혼을 위하여 거동사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

다시는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지 말자

이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용산에 철거민들의 한을 남기고 말았구나.

겨울날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인데

그러한 이론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시간

찬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에서서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봄

진달래꽃이 피는 그날이 오면

용산 참사로 죽은 철거민들의 혼령이라도 위로하자

오랜 세월동안 정토의 노래를 부르던 거동사 부처님

천년이 지난 오늘밤에도 그날처럼 기대려야 하나

저기 저 푸른 소나무 가지 위에 날개를 펴고

말없이 날아가고 있는 한 마리 작은 학이 되자구나,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면 거동사 부처님 전에

오늘을 참으로 슬프게 노래하자구나.

살인진압 이명박 정권 즉각 물러가라!

5·18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탄압하는 반통일정부

-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은 반드시 무죄석방되어야 한다.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홍승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집행간부들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침입탈출·이적단체구성·가입·찬양·고무·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여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 징역9년 자격정지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 징역8년 자격정지8년, 문경환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상임연구원에 각각 징역6년 자격정지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실천연대가 ‘주체사상파주도로 결성된 북한추종의 <친북이적단체>로서 민간통일운동 단체로 위장하여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선봉대>역할을 해왔다’며 ‘이와같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함을 보임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수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집행일꾼들에게 ‘총명하고 심성이 맑은 사람’이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순수한 애정에서 일 것으로 믿고 싶고 그것이 사실일수도 있다‘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부여한 신성한 사명 이자 책무 ‘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 우리 국민 모

두의 번영과 행복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위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을 구형했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실천연대를 결성하고 가장 혼신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일꾼들에게 이같은 죄명을 적용 중형을 내린데는 아주 잘못된 두 가지 전제와 폐기처분되어야 할 법적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이고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전제이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따라서 애국애족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처벌해야한다는 검찰의 낡은 고정관념과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밝히는 것은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의 무죄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된다 할 것이다.

모든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공소장 머리에는 상투적으로 쓰는 이북을 헐뜯는 말이 있다. 실천연대사건 공소장에도 예외는 아니다. 바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등 긴 설명이 있다.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운동 내용들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로 몰아가기 위한 필수전제이다. 그렇다면 이북은 과연 <반국가단체>이고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드러난 문헌적·사료적·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안의 반국가단체>라든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고 공안당국은 한결같이 말해오고 있었다. 공안당국이 사실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구형의견에서 말한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부여한 신성한 사명이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공안당국에 있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외의 체제와 제도 이념사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론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일방적 주장이 객관 사실을 가질 수는 없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행정력)이 미치는 38도선 이남지역을 가리킨 것이었다. 또한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회원국으로 가입을 결의했다. 유엔회원국의 지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의무를 수락하고 유엔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의 남북사이 공동성명과 합의

서, 공동선언 등이 남과 북 모두 상대에게 국가(정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1972.7.4)이 그렇고 이명박정부가 특히 내세우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에서도 ‘남과 북은 서로의 존재(체제) 제도 사상 이념 등)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6.15 남북 공동선언>(2000.6.25)에서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연합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으며 <10.4 선언>(2007.6.4)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재천명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합의했다.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와는 상상할 수 합의이고 형식과 내용 또한 그러하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며 각급 당국사회담과 인적물적교류 금강산 개성관광, 개성공단가동 각종 사회문화교류로 자주통일의 길을 탄탄히 다져오고 있지 않았던가! 아직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검찰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정신병자의 잠꼬대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북은 과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이다.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조건에서 남이나 북 모두 어떻게 재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주장과

방안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남과 북 다같이 자신의 사회체제로의 통일을 바랬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7.4남북공동성명>이 있고 부터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남북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이북이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지만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의 문헌이나 행동 어느 곳에서도 검찰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이북에서 통일과 관련 거의 <경전>이랄수 있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국가보안법사건의 법정심리과정에서 자주 인용돼 검찰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3대원칙>과 1980.10월10일 제 6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김일성주석의 보고였던 <고려연방제 창립방안> 그리고 1993년 4월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의 김일성주석의 연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말 한다.

이 <조국통일3대현장>은 하나같이 외세간섭없는 민족 자주적으로 무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대단결정신으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연방국가를 세워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추구를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결하고 민주주의를 귀중히

하여 주의주장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아야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 그것을 미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용하며 접촉과 왕래 대화를 통해 단합하고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을 강화할 것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한다고 했다. 어느 항목에서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자세한 내용 후원회소식 184호보심)

이 밖에도 10.4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적대관계종식문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 등 적화야욕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합의였으며 휴전선 바로 인접에 군항이 있는 군사요충지인 금강산 개방과 개성공단에 있던 군대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하고 2,000여만 평을 남쪽기업에 내놓고 있는 것을 검찰은 어떻게 해석할 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실천연대 일꾼들의 통일애국활동을 구속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주 반통일성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인권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또한 공안당국의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유

무죄가 가려지고 가중처벌되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연대 통일일꾼 활동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북과 연관시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친양고무 선전 또는 동조했다고 임의로 규정하여 처벌하려 한다. 따라서 식민지지배수단의 유적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로 자주통일로 가는 6.15공동선언시대 이미 그 존립명분도 사실상 실효성도 없게 된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악법이다. 이 법의 적용에서 법원의 판단을 검찰과 다른 모습도 보여주었다. 지난해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시우평화사진작가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던 (국가) 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반국가단체 친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회합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었다. 이 선고에서의 판단 잣대는, 예를 들어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에서 이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한욱 집행위원장이 오세철 교수등 '사노련' 사건 영장전담재판부가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을 비유하여 '사회주의를 처벌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를 구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이행 행위를 처벌하려는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역사의 쓰레기장에 버려야 하고 이 악법으로 구속되고 재판받는 모든 양심수는 조건없이 무죄석방되어야 한다.

다음은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들이다.

먼저 검찰은 강진구 최한욱(직함생략)활동가가 공소 외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이북)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친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강령을 가지고 자주 통일운동을 했을 뿐 이 땅에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 등을 친양, 고무,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러한 검사 논고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을 반영한 공안시각일 뿐이다.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경한, 곽동기 활동가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친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한 혐의이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상대가 있었을 뿐 반국가 단체는 없었고 이적단체가 아닌 통일운동을 하는 실천연대에 가입했을 뿐이다.

세 번째로 실천연대 활동가들이 실천연대 제3기 제4기 5기 6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공대위구성 등을 통한 반미자주화투쟁,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반보수투쟁 등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철수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여왔었고 반미자주화운동이나 6.15민족공동위원회강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보수연대투쟁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이북의 대남선전선동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것은 헌신적으로 자주 통일운동을 하는 통일일꾼들에 대한 모독이며 냉전과 공안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안당국의 논리일 뿐이다.

네 번째로 실천연대 활동가들이 의식화교육을 위해 6.15학원개설, 일꾼전진대회, 사상학습, 언론기고 및 통일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이지만 이 또한 학술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다섯 번째 공소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의 저술과 논문, 강연자료, 언론사 등에 대한 기고 또는 ‘집행위방’ 이메일 등에 들어온 문건 등을 이적표현물제작 소지, 반포 판매 등에 대한 혐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들에서 표현된 국가보안법 폐

지와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이행촉구 등 이북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있다해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통일운동과정에서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6.15민족 공동위의 남·북·해외 공동 결의문들은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건들은 이적목적이 아니라 통일목적이라고 활동가들은 심리 과정과 최후진술에서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진구, 최한옥활동가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과 목적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혐의와 그 지령받은 이른바 대화록을 이적표현물이라하여 제작 반포한 혐의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혐의이다. 강진구활동가는 2004년 12월 22~24일까지 통일연대 집행일꾼들과 함께 북경에서 이북의 민화협 리창덕사무소장 등을 만나 민간통일운동관련 의견을 나눈 것을 지령수수로 조작하고 대화록으로 작성 일부소속회원들에 참고자료로 읽어보게 한 것을 지령문 전파로 둔갑시킨 혐의이다. 검찰이 대남 공작원이라고 하는 리창덕 사무소장 등은 이미 6.15남측성원들이 수없이 만나고 대화도 했던 6.15북측성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북경모임과 관련해선 당시 함께 갔었던 통일연대 한충묵 집행위원장이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법정증언도 있었다.

이제까지 실천연대 통일일꾼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가입과 찬양, 고무 그리고 이적표현물제

작 소지.반포 이북공작원과의 회합과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잠입과 이북공작원의 지령내용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이북이 반국가 단체이고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왜곡의 토대에서 그리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의한 조작이다 당연히 이 혐의들은 무죄여야 한다.

지난 여름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친북좌경세력의 배후조종이라며 공안정국을 조성 표적수사하여 조작해 낸 것이 실천연대 탄압사건이다. 실천연대는 공식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8년 동안 활동해 왔었다. 국가변란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면 왜 8년 동안 그대로 두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연대의 통일운동은 정당하다. 반드시 무죄석방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정책을 그만두고 6.15, 10.4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야한다.

장엄한 서사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봄의 노래
였습니다.

실로 겨울의 언땅
에서 대지의 온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후
에 피워올린 아름다
운 웃틈이었으며 터
져나오는 함성이었
습니다.

요동치는 생명의 기운에 하늘은 길을 열어주었으며
열린 하늘 길로 치솟은 불꽃은 아이를 감싸안은 어머
니의 치마폭처럼 궁극에 평화였습니다.

은하2호가 그렇게 당당하게 지축을 울리고 치솟아
우주의 바다를 유영하여 무사히 궤도 진입함으로서
북이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확보로 온 인민들에게 사
회주의공화국의 위대함을 펼쳐 보일 때, 그러한 때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요.

집권 초기부터 반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그날 긴급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소집하여 지하벙커 위기관리상황실에서 두더지처럼
모여앉아 도시락을 까먹으며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대책없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리배들의
소동에 불과한 회의였습니다.

전날 G20금융정상회의-날강도들의 회의-를 마치
고 런던에서 돌아와 피곤함을 무릎쓰고(?) 회의를 주



▲'은하2호' 로켓 발사 장면

재한 이명박대통령은 합참
의장의 위성발사 보고에 상
황을 예의주시하고 군경계
태세를 확실히 하라는 명령
을 내렸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기껏 지
하벙커 속에서 사색이 되어
북의 의도를 왜곡하는데 모
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그들이 도발 운운하여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 대
한 불신과 몫이해와 악의에서 비롯된 질투심이 그들
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예를 들어야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지
만 적어도 우리네 정서란 것은 주변의 아는 이가 학문
을 열심히 하여 박사학위라도 취득할라치면 집안 잔
치 이웃잔치 벌이며 그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의 박사
학위가 나를 밥먹여 줄 리도 없는데 좋아라 축하해주
는 것이겠는데 내 민족, 내 부모형제와 다를 바없는 북
의 위대한 과학적 기술의 발현에 맞뚱뜨린 이 나라의
수장들과 조중동과 여타의 언론들은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치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국가보안법에 적용될까 하여 북을 대놓고 친양
고무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
고 전해주었다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아래 인민들의 향상된 생활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서 그 성과물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에 이르자 남에서는 종일 언론매체들이 특집을 편성하여 보여주기는 했어도 그 자리는 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학 교수니 통일원연구원이니 군사전문가이니 하고 나온 사람들의 도대체 모호하고 짜증나는 말장난만 늘어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 기술의 성과와 영향과 경제에 미칠 파장 따위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이나 논평이 아니라면 이미 핵탄두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는 인공위성 발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규정은 어떤 전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당일까지 정부는 일관되게 북의 미사일발사는 남에 대한 도발이라고 못박고 있었고 이명박대통령은 태연함을 가장하며 식목일 행사에서 나무를 심으며 ‘북한을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으며 심지어 공영방송의 뉴스진행자는 빈정거리며 “북한 주민들이 깊주리고 있는데 인공위성발사라뇨?”라고 그야말로 천지강산 분간 없이 떠벌려냈으니 그 분수없음이 점입가경이었습니다.

2월24일 북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를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우주의 평화적이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화적 이용정책의 표본으로 80년대부터 자체적인 인

공위성 발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시켜왔다고 하였습니다. 1998년 8월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쏘아올려 궤도 진입의 성과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그 1단계로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하여 수없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가 주는 가장 큰 감동은 북의 과학적기술은 강성대국을 담보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인민들에게 당과 수령이 돌려주는 생애 고귀한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은 인공위성발사 예고로 미제국주의의 침탈에 쇄기를 박으며 주변국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은 자국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식민주의 비동맹국회의 국가들에게 첨단의 과학기술을 제공하며 미국에 맞서게 하여 사회주의 동맹을 과시하며 체제우월성을 드러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북의 든든한 우방이기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가져다 줄 반사이익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을 동안 이 나라가 내보인 행태는 미제국주의의 그것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긴밀한 협조운운하며 미·일과의 동조를 외치고 있었으며 사대매국외교의 표본인 유엔안보리 결의에 목을 매달다가, 주도권을 이미 북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한국으로서는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게 된 6자회담을 들먹이기까지 했으니 그 행보가 하도 딱하여 동정심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 예고 후 이명박정부는 3월이 되자 이미 가입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오던 PSI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PSI가입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압박 수단이 될수 있다고 슬그머니 PSI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미.일은 그들의 안마당인 유엔에서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발사관련 북에 대한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북의 미사일을 발사할 권리를 인정하고 북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차관이 유엔유럽본주 연설에서 북의 인권을 들먹이는 철면피노릇에 앞장서고 있을 때에, 한.미동맹이야말로 전 국토를 미군의 군화발아래 두는 야만적 동맹이기에 북은 한.미동맹파기만이 자국의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남의 대미종속적 한.미동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3월 9일부터 키-리졸브훈련이 시작되자 그것이 방어훈련이 아닌 북침전쟁연습인 것을 명백하여 북은 북침전쟁연습인 한.미군사훈련을 맹렬히 비난하는 가운데 12일이 되자 북은 국제기구에 인공위성발사료를 통보하였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앵무새처럼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은 4월4일~4월8일 사이에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는 외교서한을 런던의 국제해사기수(IMO)에 통보하였고 한국의 외교부는 능청스럽게 그것을 인지하고도 위성락 6자회담대표는 북의 미사일발사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동에 북은 의연하게 25일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대에 장착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며 인공위성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합세하여 즉각 발사중지를 촉구하고 나섰을 때에 통일부가 주도하여 북미사일상황대책반을 가동하는 수선을 피울 동안 러시아는 위성이면 안보리결의와 무관하다고 미에 통보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중국조차 군사대응의 필요성에 난감함을 보일 때 거꾸로 한국은 미·일과 공조대응을 결의하였습니다.

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인공위성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라고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주변국들이 방해책동에도 한 치 흔들림없이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인공위성을 쏘아올림으로서 쾌도난마의 진수를 보여주었을 때에도 MB정부는 소귀에 경읽기 인양 연일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이며 북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남 비용으로 로켓발사한 것에 크게 실망하며 추가적 도발행위 때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무엇이 도발인가요? 침략군인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키는 것도 모자라 최첨단 무기와 전쟁물자들과 해외주둔 미군을 안마당까지 끌여들어와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연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분단을 영구히 획책하려는 심각한 도발이 아닌가 말입니다.

북의 자주적 창조적 자립경제는 인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존엄함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지만 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동맹강화는 군사 문화 경제적 종

속을 더욱 심화시켜 머지 않아 우리 모두 뼈아픈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봄의 변덕스런 날씨가 혹시 인공위성 발사에 영향을 줄까 하는 나의 우려를 깨끗이 잠재우며 북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그 소식에 접하는 순간에 내가 가졌던 즉각적인 느낌은 만세!라는 것입니다. 후에 인터넷에서 그림으로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대했을 때 가슴 뭉클함과 솟구치는 탄성과 눈에 고이는 감동의 눈물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옹색함에 찌들어

있는 나에게까지 그런 감동 주었습니다.

이런 선의의 시선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한다면 나무를 나무로 보지 못한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보된 사회로 단 한 발도 내디디지 못할 것입니다.

북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세계 인민들을 위해 너른 품을 펼쳐 껴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는 봄바람처럼 내 마음 설레이게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난 후원회 소식지에 제호 209호를 208호로 잘못 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고에서 수입합계를 4,860,000으로 바로 잡습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상영회(128회)

- 일시 : 5월 12일 (화) 오후 6시
- 장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품명 : 조선의 별 3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0년 제작, 90분 상영)
- 줄거리 : 1920년대말부터 1930년대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모습을 그려낸 이북의 대표적인 혁명영화.

제3부는 편협한 민족주의자, 종파주의자의 음모를 물리치고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중의 한명인 김혁이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다 설은주와 함께 일본경찰 미행에 걸려 장렬히 전사한다.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단호히 규탄배격

- 6자회담 참가하지 않으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선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결고든 유엔안보리의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부당천만한 처사로 봉인찍고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였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외무성 성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끝끝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결고드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역사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 상임리사국으로 틀고앉아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상정론의한것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고 떠들고있지만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위성발사이든 장거리미싸일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일본은 저들의 주구이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 우리는 저들과 제도를 달리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것이 미국의 론리이다.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그대로 받아문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위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어야 한다.》고 규제한 우주조약에도 배치되는 란폭한 국제법유린죄행이다.

오늘의 사태는 유엔현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허울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론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성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는 강권의 도구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전횡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다.

회담참가국들 자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정면부정해나선 이상 그리고 처음부터 6자회담에 악랄하게 훼방을 놀아온 일본이 이번 위성발사를 걸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단독제재까지 가해나선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의의를 돌이킬수 없이 상실하였다.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평화적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6자회담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었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다.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국력이 약하여 주변렬강들에게 이리저리 유린통락당하다가 끝내는 일제에게 통채로 삼기웠던 100년전의 치욕의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자주, 선군의 근본취지이다.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었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주체98(2009)년 4월 14일 평양

*<조선신문>에 발표한 글입니다.

오늘이 어제였으면 좋겠네!

전미라 | 양심수후원회신입회원 논술교사

아침 6시,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초등학생 소녀도 아닌데 나는 여행의 설렘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일요일의 늦잠을 포기하고, 별떡 일어나 준비를 했다. 치약, 칫솔, 수건, 갈아입을 옷 등 빠짐없이 준비하느

라 준비했는데도 빠진 것이 있었다. 8시가 되어선 아이들을 깨우고 9시쯤 버스를 타려 집을 나섰다. 가방가득 소지품들을 챙기고, 아이 둘을 앞세운 나는 흡사 소풍을 나서는 아이 같이 들떠 있었다. 막내딸은 당연히 따라 갈 줄 알았지만, 아들이 따라 나서서 내심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재미없어서 실망할까봐...) 중간고사 시험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큰 딸만 남겨둔 채 1박2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해인사 답사라는 말에 무조건 따라 나선 길이었다.

버스에서의 간단한 인사로 어떤 분들과 같이 가는 줄 알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참석한 집도 있어 살짝 부러웠다. 길 위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처음 도착한 곳은 '가야 박물관'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직도 미지의 세계처럼 남아있는 나라. 삼국시대라는 이야기는 해도 사국시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 변방의 이름 없는 나라처럼 잊혀진 나라. 그러나 가야는 우리나라의 철 생



산지로 가장 유명한 나라였고, 낙랑과 왜구와 철 무역을 했던 나라였다. 세삼스럽게 가야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덤에서 발굴된 많은 유적들은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막

내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함정'이라고 했다. 무덤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단순히 무덤 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형을 같이 묻어놓아 인상적이었다. 그중에서도 순장 풍습에 의해 묻혀졌던, 50대 남자와 8살 여자 아이의 순장 무덤은 조금 잔인하게 까지 느껴졌다. 주인을 모시던 노비로 추정되지만, 8살이라니...

'대가야 대항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치르고 있던 축제의 북적거림을 뒤로 하고 '개실마을'에 들렀다. 그때까지도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여친과의 전화통화로만 시간을 보내던 아들이 조금은 사람들과 어울린 계기가 마련된 곳이기도 하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는, 산세와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문화해설사 분이 열심히 마을 설명을 해주셔서 획 둘러보고 그냥 나오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었다. 나름대로 체험마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

다. 약간의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쳐 다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 해인사로 출발해 어둠이 모두 뒤덮어버린 시간에 숙소로 도착했다. 기와로 얹은 지붕과 빼그덕거리던 마루가 인상적이었던 숙소 ‘산장여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즐겁게 방을 누비고 다녔다.

9시쯤 모여서 들었던 교수님의 역사 강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나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듯 술과 여흥으로 끝을 맺는데 비해, 유적지에서의 역사 강의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같이 한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6살 꼬마아이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 까지 함께 한 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 참으로 신기했다. 달콤한(?) 잠을 자고 아침 6시 20분부터 일어난 나 때문에 우리 방 사람들은 모두들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조금 미안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침밥을 먹고 출발한 해인사. 어쩜 그렇게 날도 잘 잡았는지, 날씨가 너무 좋았다. 걷기에 덥지 않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니 춥지 않은, 하늘이 허락한 날이라는 생각을 했다. 해인사 앞에서 만난 해설사 아저씨(?) 총각(?),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깨서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일주문, 봉황문, 혜탈문을 지나 해인사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 했다는 탑돌이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법고, 범종, 목어, 운판이 모두 걸려 있었던, 범종각. 내가 가보았던 절들이 작아서 그랬는지, 네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을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법고와 범종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해인사의 결정판 장경판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이다.

통풍이 잘되고 해충이 생기지 않아, 팔만대장경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쉽지 않은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이었다.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승려들의 저술, 시문집 등이 새겨진 고려각판도 보게 되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접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새삼 느끼게 된다.

장엄한 해인사를 뒤로하고 양전동 암각화와 개경포 나루에 들렀다. 암각화의 크기는 작았지만 새겨진 그림으로 미루어 보건데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태양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때의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이렇게 그들이 남긴 흔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쫓고 있는데, 양전동 암각화에서도 느꼈지만 그 보존이 참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잃고 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다. 강화도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살고와 내렸다는 개경포 나루는 누군가 그곳이 “개경포나루였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주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평범한 강가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물수제비 뜨는 것에 재미를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었다. 누가 더 많이 뜨나 내기도 하며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먼 곳으로의 여행이었기에 일찍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꽃놀 이를 다녀온 많은 여행객들에 의해 도로가 막혀 예정 시간보다 늦은 시간 도착하게 되었다. 같이 했던 1박 2일의 여행은 어떤 아이가 “오늘이 어제였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딱 그랬다. 여행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즐겁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은 여행의 효과를 배가 시키는데 충분하다. 1박 2일의 즐거운 여행이 아마 나에겐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장민호 (이른바 '일심회' 관련 사건 양심수)

타이타닉 대한민국 식민지 분단호(號), 2009-2012

2009년, 타이타닉 대한민국 식민지 분단호(號)
호화로운 선상(船上) 식당에서
지난 한 세기, 매국과 착취의 단 맛을 탐닉하여온
한 무리의 식객(食客)들, 그리고
그들의 충직한 동반자이며 산해진미를 책임질
검, 경 모자를 쓰고 법의 식칼을 허리에 두른
한 무리의 요리사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어
식사食事を 하고 있다.

저들은 용산참사의 진동하는 피비린내에는
연쇄살인 사건같은 독한 양념이 제격,
천문학적 부자감세의 지나친 느끼함은
급조한 서민 생계 대책의 맛소금으로, 아주 조금만,
촛불시위, 인터넷 그리고 비판언론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처럼
법의 칼을 내던지고 요리의 절차마저 무시하며
맨손으로 마구 주물러 망쳐버린 요리들은,
시시한 수뢰혐의의 시래기 여당의원이나 청와대직원 한 둘 섞여
비빔밥으로 대충 얼버무려
요리는 역시 적절한 배합이 핵심이라고 떠들어대며
서로 부추기고 격려하며,
우리들의 피눈물, 명든 기슴 그리고 노동의 성과들,
민중의 피와 살을 식재료 삼아
법과 질서, 여론의 식칼로 묘기를 부리며
진수성찬의 요리냄새, 식사냄새를 벌이고 있는 것,

그들은 민중의 고통의 바다 한 복판에서 정의와 진리와 인간을 우롱하며, 한마디로
놀고 있는 것이다!

2
놀고 있는 식객들, 그들의 충직한 요리사들!
혹시 너희들은 생각해보았는가?

고급 식탁위의 접시에 암전히 누워있는 붉은 살점들이
꽃등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
거친 들판을 타오르는 들불처럼 질주하는 소떼들의

붉은 심장이라면,
 술잔의 붉은 포도주는 들끓는 피, 저 값비싼 것은
 샥스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이라면,
 그것도 상어떼!
 해방과 자주의 물결로 소용돌이치는 망망대해를
 가득 채운 우리들의 분노와 결의가 화신(化身)하여
 넘실거리는 상어떼라면
 너희들이 기대어 앉아서 놀고 있는,
 선상식당의 최고급 식탁이며 의자들이 곧 난파될 타이타닉 대한민국 식민지 분단호(號)의
 정처없이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닐 파편조각들이라면,
 이것이 어느 미국영화의 낯익은 장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이미 오래전인 1912년,
 침몰한 미제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비극적 운명을 뒤쫓아
 한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침몰하여 온
 매국노, 매판자본가, 분단세력들, 너희들만의 반쪽짜리 배,
 대한민국 식민지 분단 유람선의 선상식당에서 벌어진
 최후의 만찬이라면,
 애시당초 너희들의 밥이 아닌, 식재료가 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인간의 피와 살들로 넘실거리는
 민중의 바다, 거대한 파도 속으로,
 민족의 준엄한 분노로 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무자비하게 침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코 앞에 닥친
 궁극의 현실이라면,
 꿈엔들 감히 상상해 보았는가?

은하 2호 로켓의 시

200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은하2호가
 수천개의 미제 인공위성들이 득실거리는 우주상공을 향하여
 온 몸으로 돌진한다.
 누구는 실패라고... 누구는 성공이라고
 부질없이 변하는 저들의 이른바 <사실事實들>앞에서
 우리들의 확신은 굳어지는 바
 저들은 아는 것이 쥐뿔도 없다는 것

우리들의 확신은 굳어지는 바

저들은 아는 것이 쥐뿔도 없다는 것
은하 2호 로켓의 진실에 대하여
그 몸체에 담겨진 추진 연료, 동력이 무엇인지
분단조국의 하늘을 힘차게 차오르는 힘과 윤리의 진실이 무엇인지.

들어 보았는가? 너희들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차라리
실패를 조롱하는 듯 텔끔만큼도 개의치 않으며
너희들이 악의에 찬 조롱들을 조롱하며 전진하는
노동계급의 숭고한 함성을 들어보았는가?
너희들은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의 심연에
고작 수천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을 띠어놓고
마치 우주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우쭐대지만
철부지 매국노들은 개뿔도 모르며 덩달아 우쭐대지만,
정작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작은 행성,
지구의 도처에서는 지구의 운명을 책임진 의연한 노동계급의 국가들
그리고 자주와 진보를 옹호하는
수십억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 제국주의 침략의 무리들
너희들만의 국제규범과 사이비 과학들을 조롱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

너희들은 도무지 알 턱이 없다.
수천 수만의 위성으로 사진찍어 제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불법 도청으로 그함성을 제 귀로 들어도 모른다.
그것은 21세기 첨단 열역학 우주역학도 아니요
옛날 어느 노동자 시인이 노래하였던
세상을 굴리는 통밥도 이젠 더 이상 아닌,
우리들이 궁극의 과학 바로 민중의 자주적 요구!
그것으로 온 몸으로 돌진하며 실패를 모르는
실패하면 다시 할 뿐인 민중의 돌진!
그냥 민중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연루된
우리 민중, 우리 민족끼리
한 몸으로 되어 밀고 나가는 돌진임을,

너희들은 쥐뿔도 개뿔도 모른다!
별건 대낮에 두 눈 썻고 보고, 또 보아도
은하 2호 로켓의 진실, 우주의 진리를.

- 2009년 4월 12일

박경식 (이른바 '일심회' 사건 양심수)

고추장을 먹다 든 생각

빨간 통 안에서
고추장이 끓고 있었다.
하닥하닥 날숨의 기포들을
온 몸에 새기면서

혀에 익숙해진 맛의 의미를
이미 고추장은 눈치를 챌던 걸까
붉디붉은 몸을 드러내고
시위를 한다.

초속 8Km로 지구를 돋나는 위성은
아프리카라며 섬칫한 두개골 사진을 보내고
새빨간 지식은 야만과 황량함을 더해
나는 행여 가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곳 부족의 지도자는 추장,
추장보다 높은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이
얼얼하게 맵기는 한 가지겠지. 그렇게
연대와 위안으로 어겨왔을 뿐

초조함에 까무라쳐 속이 그을은 고추장
찬물을 바가지 1로 부어도 소용없어
땀과 눈물로 비벼먹는다.
싸한 매움이 뇌세포를 후려치는 칠라.
법무부 제 20공공직업훈련소, 웅진고추장이
까만 글씨로 내용물을 분해한다.

고추분 국내산 10.9%, 미국·호주산 소맥분 23%,
대두는 미국산.

연대한다 생각한건 추장아닌 미국이었나?

혓바닥이 굴종을 인식할 무렵
후벼파는 진실에
'아차'하고 놀란 위가
경련하며 외쳐댄다.
태양초 고추장아, 순창고추장이여!

배식구

돌아앉은 철문 옆에
네모난 구멍하나
입 벌려 숨을 쉰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휑한 가슴과
한 줄로 세우면
바람은
세상소식을 짊어지고 들어온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안에는
고단한 시간들이
선풍기 날개위에서 뻥, 뻥 돌아가고,
언제 이렇게 왔던 걸까?
“1,2,3,4.....30,31”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쳇바퀴 도는 숫자들은
달력 속에서 물끄러미 쳐다본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낮은 낮이어야 하고 밤은 밤이어야 하는데
낮의 빛깔엔 초라하고
밤의 색깔에 무뎌진 줄 모르는 형광등
나의 밤은
그래서 어둠이 그리운 거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바깥세계와 호흡하는
유일한 숨결.
그 네모진 공기가 토헤내는 이야기는
기만과 탐욕, 잔혹하고 무도한 권력이
개같이 짖어댄다고 했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하지만 나는
각진 배식구에 오늘도 가슴을 맞댄다.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그곳에 눈과 가슴을 맞추는 까닭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저 있어야 할 것들을
제 자리에 휩쓰는
대기의 거친 파동이 있기 때문.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서예】 중 13월

- 2009년 4월 광주교도소에서

* 권오현 회장님과 후원회원 여러분께 광주에서 박경식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를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새기며, 내일의 칼을 가는 옥중의 동지들께도 남도의 봄소식을 전합니다. 반민족적인 반북대결책동이 심화되고, 반민중적 공안통치가 강화되어도 깊어지는 것은 저들의 무덤일 것입니다. 늘어가는 옥중동지들이 명단을 보고 탄식과 분노로 지내기 보다는 여유와 미소를 놓지 않기를 바라며 적어 보았습니다.

광주교도소 이용대 동지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낸 진정서

1. 동절기 목욕을 이유로 운동권 제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3조 동법시행령 제 49조에 따라 한시간 이내에서 정기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 동법 시행령 49조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1호에 의거 근무시간에 실시로 규정.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도(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등을 운동권 제한의 근거로 두고 있음 이에 광주 교도소에서는 2008년 9월까지는 목욕과 운동을 별개로 보고 제한하지 않았다고 함. 법과 시행령 역시 운동과 목욕을 별도 조항으로 입법하였으므로 목욕일 운동활동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광주교도소(소장 김현태)는 인원부족등 궁색한 이유와 변명으로 운동권을 침해하구 결국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임

이에 조사와 조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2. 의료시설 및 의료인원관련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9조 1항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음. 또 동법 시행령 제 46조는 소장으로 하여금

보건, 위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지만 시행규칙에 의료인력은 빠지고 의료시설만 규정하여 결국 의료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임.

2008년 12월 19일 개정된 수용자의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 821호)에도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비상 대책도 빠져있어 수용자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조처가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의 교정시설에는 의료시설이 아닌 의료인력이 야간에도 일정 부분 근무케하여 응급 환자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됨. 또는 일정거리내의 외부진료인력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설치 될 수 있게 규정되어야 됨. 이에 야간진료대책실태를 조사, 조처를 구하는 것임.

3. 교도소내 질서유지반 활동에 관하여

광주교도소에서는 질서유지반들이 일반교도공무원들과 상이한 복장으로 소내 곳곳에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을 하고 있으나 우선 근무복에서 물어나는 위압감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심적으로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질서유지반 활동이 업무적으로 어떤 내규 규정에 의한지는 모르나 인원부족등을 이유로 규정에 있는 운동권조차 제한 시키면서 재소자들에게 상대적 불안감과 위압감을 조장하는 복장과 말투로 질서 유지반을 운영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 조처를 구하는 것임.

2009년 3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용대동지는 건설노조(충북) 노조원으로 단체협약이행 촉구사건 관련하여 08.2.15 구속되었습니다.

모든것은 사람에게 달렸다

유영호 | 회원, 통일뉴스기고자

이번 4월 산행은 마침 우리 가 산행하는 날인 '3째 주 일요일'이 바로 4월 19일이라 의미 있는 산행이 되 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써는 내가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에 참가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여 더욱 뜻 깊은 산행이었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지만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산을 1년씩이나 갈 줄이야 꿈엔들 상상이나 해봤나요? … 하하^

본래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였지만 이 산악회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웬지 이상하게 산행 날이 기다려지니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말이 옳은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듯이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가 나에게 그런 존재로 위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저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되는 집단으로…^

이리하여 나에게 산행 날은 애인과 데이트하는 날이랍니다. 일요일이라 아내와 딸이 잠들어있을 시간 홀로 일어나 궁상맞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물론 번거롭게 도시락을 안 싸도 참가비로 단돈 2천원만 더 내면 해결되지 만 언젠가부터 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멀리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맛있는 반찬을 가



지고 오셔서 젊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에 웬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뒤부터 비록 맛은 그보다 못하지만 그리고 도시락을 싸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쟁겨가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맛난 것이 혹 있으면 꼭 쟁겨가보려고 한답니다. 사랑하

는 애인을 위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리'라는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 이죠.

4월 산행이 있는 날 조금 일찍 나와 출발하였더니 북한산 입구에 8시 40분쯤 도착하였는데, 그 뒤 한 두 분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산행에는 연로하신 변숙현 선생님께서 함께하셔서 더욱 기뻤습니다. 지난 번 전화통화에서 산행에 나오시라고 부탁하였을 때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얼굴보러 합 가지요"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다. 이날은 이렇게 오랜만에 변선생님과 함께 산을 오를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4월 혁명 공식행사 등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이 몇 있어 그런가 웬지 참가자가 많이 많았습니다. 이리하여 약 9시 30분쯤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전 날 알코올과의 과격한 데이트로 후유증을 앓고 늦게 오고 있는 모성용선배때문에 우리

산악대장이신 김재선형님과 김익이 뒤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기로 하고 약 10여 명이 등산길에 올랐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산행은 항상 그려하듯이 일정 시간 정도 올라가다 쉬며 막걸리를 한잔하였는데 글쎄 어찌 된 것인지 올 두 번째 산악대장님이신 김정태씨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도 막걸리를 먹자는 소리를 안하지 뭐라요. 거참 껌꺌^^ 내가 한잔 하자고 했다가 누군가 올라가서 점심때 먹자는 소리에 그만 죽었구만요…흑흑^^

그리고 여기서 좀 쉬고 있으면 후발대가 올라와 함께 결합해야 하는데 어찌 올라오지 않더라구여. 글쎄 모성 용선배가 도착한 뒤 수원에서 오시는 어르신이 그 때 수유역에서 오시고 있다는 전화에 또 기다려야 했다지 뭐라요. 그래서 후발대는 한참 늦게 점심 식사하는 시간쯤 되어서야 결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 출발할 때는 함께 올라왔던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 머릿수가 많이 늘어났지 뭐라요…헉헉^^ 후발대로 올라오신 4명뿐만 아니라 어디로 올라왔는지 정상에 오르니 김래곤씨가 와있고, 또 일요일임에도 회사일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던 오창근씨도 늦게 도착하여 혼자 진달래 능선을 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며 전화가 와서 찾지 뭐라요. 뭐 이리하여 적었던 참가자는 20명을 훌쩍 넘기게 되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식사 장소가 넓지 못해서 그랬는가 식사를 하고 진달래 능선을 타고 내려오며 생각해보니 글쎄 다 함께 사진을 못 찍었더라구여…켁켁^^

이렇게 진달래능선을 타고 내려와 <4.19묘소>에서 4월혁명의 영령들께 참배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4월혁명 계승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고. 지금 현 정세는 대단히 혼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정세가 더욱 힘있게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점심 식사 장소가 모두 둘러앉아 함께하기 힘든 곳이라 <산상강연>은 이곳 4.19묘소에서 통일뉴스의 이제환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최근 급격히 대치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이곳 4.19묘소에 오니 공식행사로 이번 산행에 참가하지 못한 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몸이 불편하여 산행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묘소참배와 우리 뒤풀이에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권오현회장님과 김호현부회장님 등이 결합하였고, 통일뉴스의 김양이기자님도 함께하는 등 뒤풀이할 때에는 우리 산악회가 졸지에 대식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산길을 잘 모르는 터라 어느 코스로 우리가 이동했는지 여기에 글로써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좌우당간 작년 4월에 갔던 그 코스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좀더 길고 힘든 코스였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도선사입구>→<대성문>→<진달래 능선>→<4.19묘소>라는 것밖에는 모르겠네요…꺌꺌^^

뭐 산행기라고 처음 써볼 뿐만 아니라 산에 대하여서는 지식과 경험이 광인지라 산행길에 대하여서는 뭔가 의미있고 재미있는 글을 전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산악회에 함께하는 것은 산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그곳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듯이 결국에 모든 힘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달의 산행은 5월이라 광주무등산이 어찌나며 각 소속단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광주에 가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합니다. 내 핸드폰번호의 끝자리가 <0518>이고 컬러링이 <반갑습니다>이듯이 나에게 <광주항쟁>과 <조국통일>은 삶의 동력이자 지표입니다. <끝>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09년 3월 25일 현재 총 89명

구노회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15	미결
고희철	노동자	동우회인케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01-15	공방			평택구 213	미결
권승우	비정규직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영동성당앞 투석전)	2008.9.		10월		춘천교212	기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여별 6월 건설기계 총파업(제천투쟁)	2008.9.4		1년	항소중	청주교 329	미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기계(충북)	운반비인상 등 근로환경개선촉구	2008-09-04	방화	1년	항소중	충주구 223	미결
길준영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1199	미결
김동원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영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서울구 89	미결
김명호	민교협	전 성균관대 교수	석궁 사건	2007.1.17		4년	2010년 1월	의정부교 2068	
김성천	조합원	동작구 정금마을 철대위	용산 4구역 상가 할개반대통령(용산대장사)	2009.1.20				서울구 161	미결
김순진	조합원	현대미포조선노조	미포조선 용인사업 원자부진투쟁/고공농성	2009.2.9				울산구 38	미결
김승칠	비정규직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영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원주교2002	미결
김용오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724	미결
김철규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의정부 행신동 철거반대 투쟁	2008.11.29				의정부교 1039	미결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87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을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179	미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11-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미결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수원구 302	미결
김성철	재야	전철연(정금)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61	미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 화성(시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01-06	업방			수원구 335	미결
김승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8-10-02	집시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38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 노동조합설립관련	2008-04-04	"특공업방"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6	미결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71	미결
김종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0-16	"집시,폭력"	1년6월	09-Apr	안동교 844	기결
김종근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1306	미결
김종인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회(순천)	획악서 이행 촉구	2008-05-10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2	미결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20	미결
김태수	운수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10년		영등포교 1071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8-28	특공			서울구 89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8-28	특공			서울구 173	미결
남인관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2247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02-01	국보	3년6월	10-Aug	광주교 5051	기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08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구 460	미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1-07	업방	6월		김천교 215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10-Oct	대구교 45	기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시내하청)	이전택 연대투쟁(07년)	2008-10-12	업방			평택구 203	미결
안충열	학생	대학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06-23	병역법	1년6월	10-Feb	청송제2교 1144	기결
양해동	재야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제(집회)	2009.2.2				서울구 33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반대(07년) 등	2008-01-07	"집시,특공"	2년	10-Jan	여주교 270	기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2008-05-14	"업방, 명예훼손"	1년	09-May	서울구 1227	기결
유정희	해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	원일교통노조 민주화투쟁	2008.9				영등포구 2729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발퇴(7기)"	2008-02-28	국보	3년	항소중	서울구 96	미결
이영도	재야	민주노총 울산본부	미포조선 용인사업 원자부진투쟁/고공농성	2009.2.9				울산구 35	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2008-08-07	명령불복종	2년	상고중	안양교 2656	미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시내하청)	임단협(07년 8월)	2008-11-02	업방			수원구 334	미결
이라즈	이주정체이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정 소송 등	2005.12.9				화성보호소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랑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이성수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이랜드-홈에버 연대투쟁(07년)	2008-12-17	특공			순천교 270	미결
이용대	노동자	건설노조(충북)	단체협약 이행촉구	2008-02-15	"집시, 폭력"	10월+6월	09-Jun	광주교 3340	기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2-24	"집시, 폭력"	1년6월	09-Jun	청주교 1225	기결
이정이	재야	6.15남측위부산본부	전여옥의원관련 사건	2008.3				영등포구4301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09-Oct	전주교 2510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09-Oct	안동교 3010	기결
이충연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8	특공			서울구 29	미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1년6월	10-Mar	대구교 1154	기결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3.3				서울구 241	미결
임원기		무직(장애인)	용산참사 법국민 추모제(3/7 집회)	2009.3.7				혜화경찰서	미결
임상민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사정보열람	2008-08-28	정통망법	1년	항소중	서울구 111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13-Oct	대전교 4009	기결
전정구	재야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1831	미결
전수민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9-11	특공			서울구 62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천양고무 사건	2008-12-05	국보			서울구 153	미결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FTA 문서공개	2008-12-19	공무상 비밀누설	9월	항소중	서울구 3750	미결
정창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 회암병 치사"	3년+6월+6월	09-Jun	안동교 15	기결
정창화	노동자	회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19	"업방, 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구 456	미결
조인환	재야	전철연(성남단대)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45	미결
조순동	노동자	회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22	"업방, 특공"	1년6월	10-Feb	순천교 1280	기결
천춘배	노동자	회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0-21	폭력	8월+10월	10-Apr	부산구 6038	기결
최성훈	노동자	'인터넷 카페 "'밀월 국민'" 회원'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서울구 50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10-Mar	대전교 4003	기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국지장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6-0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561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76	미결
최현기	노동자	동우회인컴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01-15	공방			평택구 214	미결
한기남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1440	미결
허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법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21	"집시, 특공"	1년6월	09-May	장흥교 88	기결
총순찬	노동자	'인터넷 카페 "'애국 촛불'" 회원'	용산참사 법국민 추모제(3/7 집회)	2009.3.7				혜화경찰서	미결
천동근	노동자	건설노조충북건설기계지부	08년 하이닉스-데그나침 비정규직 투쟁	2009.2.23		1년6월		청주교 120	기결
노종면	언론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YTN 노조원들 낸산 사장 일방반대 투쟁	2009.3.24	업무방해			남대문경찰서	

01

서울 불교역사문화박물관 국제회의실에서 '6.15 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군국주의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3.1독립운동 90주년 기념식'을 가진다. 6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제남 6.15남측위 공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 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기념사를 하다. 참가자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경환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는 0민족의 자랑스러운 자주독립의 전통과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나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할 것 06.15민족공동위원회가 현위기를 남북관계를 돌파하고 공동선언이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0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적대행위와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반대하고 침략역사와 식민지 과거청산을 위해 활동할 것 등을 결의하다.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표 2박 3일 국회앞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고흥길 국회 문방위위원장의 미디어법 등 22개법안 날치기 상정은 완전 무효라며 국회에서 MB악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박 3일간 노상농성에 들어간다고 하다. 회견을 마치고 대표들은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농성중 진관권오현 정광훈 대표 등 결의발언을 하다.

미공군이 이복의 인공위성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팜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4대를 배치중이라며 이들은 현재 팜에 배치되어 있는 B-52 전략폭격기 6대와 임무교대를 하게 된다고 언론이 보도하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도쿄 학사회관에서 제12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손혁근 전 부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과동의 상임고문을 최고고문으로, 김정부 전의장을 상임고문과 신설된 배동호기념연구소소장으로 선출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운동방침을 총괄했으며 '민생·민주·평화·통일을 위한 100일간운동'을 비롯한 사업계획안을 채택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02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성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MB악법 저지와 용산살인진압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다. 정대연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장

양희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왼쪽)와 이종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통해 국회에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03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전국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대책위'(대책위)주최 '이정이 대표 석방촉구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을 열다. 부산에서 올라온 대책위성원들과 민기협 유가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책위간사의 경과보고 최병모 변호인단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전여옥의 원측의 허위주장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의 발언이 있었음. 경찰의 체포구속 과정 적법성 문제와 영장 없는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것을 모면하려 사건을 부풀리는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이정이 대표의 석방과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현장 목격담을 증언하다.

04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전용 등으로 문제가 됐던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7천 6백억 원을 비롯, 2010년부터 13년까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 금액을 합산해 5년 동안 약 4조 원의 금액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게 됐다.

05

여·야 교섭단체원내대표단은 국회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신문, 방송, IPTV, 정보통신망법 등 4대언론 쟁점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분방위에서 100여일간 수렴과정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하다.

06

판문점에서 유엔군측과 북 인민군측 사이 제15차 장성급 회담이 6년6개월 만에 열린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긴장완화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후 이 문제를 더 논의키로 하다. 북측은 지난달 28일 제기한 MDL(군사분계선)에서 미군의 위반행위 및 9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07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000여 파업노조원이 함께 한 가운데 '언론장악 저지·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6차대회'를 열고 '합의시한만 100일로 보내는 이번 합의를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계속 악법저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

장, 박상재MBC본부장 김보협 한겨레지부장 노종일 OBS희망노조위원장 등이 결의발언하다.

03

❶ 서울영등포구치소 전여옥관련사건으로 구속된 이정이 부산민가협대표 면회를 하다. 이정이대표는 일흔에 가까운 연세와 지병으로 구치소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연하게 오는 사람들을 되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김호현 임미영 함께 하다.

❷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국회는 MB악법 무더기 상정과 출속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발언에 이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국회의 현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과 희망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라며 “국가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FTA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적 식량위기 대책 마련하지도 않고 허황된 숫자 놀음을 국민에게 퍼뜨리고 밀어붙이는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다.

❸ 한·미 공군이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대구 일대에서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을 실시한다고 밝히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야간 저고도 항법’을 중점으로 어둠 속에서 항공기를 엠페온페하여 비행하면서, 적의 대공망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아군작전에 필요한 특수작전요원이나 화물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공군 15흔성비행단 255특수작전비행대 소속 공군 14명과 플로리다주 헐버트 기지에서 온 미공군 6특수작전비행대 소속 공군 13명이 참가하며 한국군이 보유한 C-130H 수송기가 동원된다.

❹ 이북의 <민주조선>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기이어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재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이날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첨단군사장비들과 대규모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연습을 강행하는데 대해 우리는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다. 신문은 “혁명적 무장력은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실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정의의 보복타격에 의해 무주고흔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다.

04

❺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새해들어 첫 대표자회의(총회)를 열고 1기 진보연대를 이끌었던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상임공동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이규재 범남본의장 한도숙 전농의장 이필두 전빈련의장 이강실 한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기로 하고, 청년과 학생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부문으로 전체 대표자회의에 참관하기로 하다. 또한 박석운 한총목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로, 집행위원장에 정대연 정책위원장 겸 대변인에 장대현사무처장에 안지중 활동가 등 집행부 6명의 인사도 이루어지다.

05

❻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한미연합 대북 선제공격연습 중단, 한반도평화실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의 여는 말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김영제 민주토총통일국장 평통사 김종일사무처장도 등은 발언을 통해 “작전계획 5027은 작전의 목표로 ‘북한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게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뭐가 다르냐?”고 하다.

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무전리 공대위와 오현리 주민 40여 명의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 강행을 규탄하며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공대위와 주민들은 “국방부와 군 당국이 진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를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민들과 공동조사하고, 주민들의 생계 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훈련장 확장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면담 요구와 동시에 청와대 민원실에도 대통령 면담 요구를 신청했음

❽ 35개 인권단체와 101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박래군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반발하다. 참가자들은 이종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유의선 빙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체포하는 만행을 보인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합법 집회냐, 불법 집회냐가 아니라

■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 정권의 개발 정책과 경찰 권한 강화”라며 “정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개발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 범대위의 활동을 발목잡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하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런 상황을 주목해야함을 EU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권에 대한 EU의 관심은 이중잣대이고 위선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다.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사 연습 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인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성명은 ‘현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들이 본래의 군사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라며 어떠한 사소한 도발적 징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다.

● 종로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745회 목요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양심수선팔과 국가보안법 폐지 각종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규탄발언이 있었음.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공동의장 이명박정부의 대북대결정책과 북침전쟁연습규탄 발언 등이 있었음.

●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가 밝히다.

● 최명남 주 제네바 이북대표부 참사는 남측대표가 제기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우려와 인권개선촉구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대한 남측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의 합의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그는 이어 ‘남측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남측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다. 또한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 수석대표의 이북과 미안마에 대한 국별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과 두 나라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에 대한 EU회원국 상황은 묵과할 수 없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이스라엘 점령지역들 및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상황에 관한 인권위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면서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사연습 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인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성명은 ‘현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들이 본래의 군사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라며 어떠한 사소한 도발적 징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다.

06 ●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한대련, 한총련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정부의 ‘대졸초임 삭감’ 방침에 대해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저임금, 빈곤화에 노동자와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졸초임 삭감 및 인턴제 사용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히다.

● 강남역 부근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산업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가 열리다. 유족인 황상기님 정애정씨와 삼성반도체 백혈병대책위 박영진 열사추모사업회, 양심수후원회, 발전노조 삼성생명해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제에서는 오신 분들의 연대발언에 이어 지민주, 박준동지의 추모노래와 송경동시인의 추모시 그리고 유족발언에 이어 죽은 넋들을 위한 살풀이 춤 공연이 있었음.

●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른바 전여옥의원 사건과 관련, 부산민가협 전공동대표인 이정이 6.15남측 위부산본부상임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다. 이정이 대표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널리 알려진 사회지도층 인사로 도망할 우려나 특별히 증거인멸할 내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법부의 본래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다.

07 ●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회 생자추모 대회가 안티이명박, 아고라 등 누리꾼들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다. 예수살기 최한국목사의 사회로 문예공연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대회에서는 홍대 뮤지션 ‘덥’, 홍대 연주자 한

음파의 마루금 연주, 들꽃의 몸짓공연, 지민주 씨의 노래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또 최근 경찰이 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화장 및 사전체포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 대해 규탄하다 이날 경찰은 추모대회를 야간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대회 장소 양쪽에 사복경찰과 전투경찰 300여 명을 배치하고 대회 막바지에 방송을 통해 해신을 종용하였지만 참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음.

- 08** 명륜동 민가협사무실에서 민가협 운영위원회 및 2009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 운영위에서는 활동 보고와 회계보고 당면한 안건 등을 논의하고 24차 정기총회를 4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 열기로 하다.

- 09**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담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착공식'이 진행되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루어지게 된 착공식에는 '피해할머니'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정치인 등이 함께 했으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일본 건설위원회' 등 일본에서도 10여개 단체가 함께하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233,215m² 규모로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정신'을 상징하는 3층과 '육체'를 상징하는 1층으로 구분되고, 그 사이 2층은 아연판 금속재료로 구성되어 '정신'과 '육체'를 가르는 '매스'로 표현하다. 201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완공을 목표로 하다. 이 박물관 건립은 정부의 도움 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힘만으로 '박물관건립위원회' 발족 이후 17억원이 모금된다.

- 10** 이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한미연합기리졸부/독수리훈련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인민군 장병들에 만단의 전투준비'를 하달하고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북긴군통신선을 차단할 것임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209 우리의 주장보심)

- 11** 경기도 성남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민주노동당·평통사·한국진보연대공동주최로 한·미연합기리졸부/독수리연습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민족 공멸의 대북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이영순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KR/FE 연습이 이처럼 공세적 전략과 작전에 따른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 분명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며 KR/FE 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마치고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회장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탱고 앞에서 1시간동안 1인시위를 하다.

- 12** 서초동 법원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염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와 대법원은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재임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압력과 관여를 한데 대한 사법권 독립의 훼손사태를 규탄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단구성을 요청하다.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전농 안티MB 등 각 단체 대표들이 규탄발언을 하다.

- 13** 미대사관 인근 한국통신(KT)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양심수 후원회 민주노총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4차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 북침 전쟁연습 중단 촉구발언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PSI 참여 반대발언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회장의 보스워스 대북특사 방한과 관련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북미직접대화 촉구발언, 유영재 평통사 미군 문제 팀장의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하려는 규탄발언 마지막으로 이경원 범남본사 사무처장이 미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모든 면에서 아주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침 전쟁연습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다.

- 14**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7,000톤급)가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에 참가차 부산(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앞 바다)에 입항하다. 항공모함에 이어 타이콘 테로가급 이지스 미사일 순양함인 앤더슨(CG-54) 호와 구축함인 프레슬(DDG-88) 호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앞 부두에 접안했다. 스테니스 호는 이들 순양함, 구축함, 핵잠수함 등으로 제3항모 강습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제3항모 강습전단 중 구축함 키드호는 현재 목포항에 정박 중이며, 순양함 레이크 캠플린과 구축함 밀리어서호는 다른 지역에서 작전 중이라고 미해군 공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12일 공개되는 이지스 구축함 USS charlee 호도 이미 동해 항에 입항한 상태다. 또한 해군작전사령부 앞 부두에는 미 7함대 기함도 정박해 있었으며, 캐나다 호위함 '위니페(4,770톤급)' 호도 이곳으로 입항했다. 한편 부산평통사 ed 시민사회단체는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전협정 6.15 10.4 선언반하는 대량살상무기로 북침 전쟁연습을 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을 촉구하다.

❶ 용산참사 현장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대위 주최로 '용산 4구역 살인개발 강행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부추기는 살인개발과 용역과 경찰의 철거재 개 중단을 촉구하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병력과 용역 100여명이 포크레인 3대를 동원 공가철거를 강행하고 용산경찰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음.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한도숙 전농의장 이경우 노동권대표 배은심 유가협회장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❷ 지난 2월 27일 민주화운동관련 명보법개정안을 낸 전 여옥 의원에 대한 항의사건과 관련,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다. 경찰의 부당한 출두요구와 조사에 대해 민가협과 유가협, 양심수후원회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조순덕 전회장을 면회하고 경찰의 출두요구에 항의하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순덕 전회장은 경찰의 혐의점에 부인했으며 경찰은 폭격자를 불러 대질한 것으로 밝혀지다. 임미영, 권오현 함께 하다.

❸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에서 <한미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관련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언행 연발과 남조선 고뢰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실정에서 우리는 누가 무어라해도 자기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다.

12

❹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전국 30여 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전국여성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여는 열쇠(KEY),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이강실 상임대표 김수진 '6·15와 함께하는 우리여성회(준)' 준 비위원장 정구율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종로지부장 등의 발언에 이어 김영란 인천여성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을 위해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2만 6천명, 한국군 2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최강의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폭격기 등의 공격형 무기들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훈련들이 북측의 수도인 평양 점령을 호언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훈련 중단을 촉구하다.

❺ 탑골공원앞에서 용산참사관련내용으로 746회 목요집

회를 열다. 권오현 공동의장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내용의 여는말, 용산참사 이상림고인의 부인, 유족 말씀, 박주선 용산범대위 간사의 상황보고 등이 있었음.

❻ 이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가 얼마전(2.24)에 발표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하나로 해당규정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밝히다.(후원회소식 209호 '우리의 주장' 보심)

13

❽ 고양시 고양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건리 훈련장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고양지방검찰청이 이번 주 초, 파주 오현리 주민 및 공대위 소속 회원 27명에게 각각 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벌금(총 벌금액 1,750만원)을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불복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방부에서 실시한 토지감정평가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하다.

❾ 영등포 구노회사무실에서 김명호교수석방대책위 회의가 열리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명호 교수의 혈흔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촉구를 위한 대한 국회의원들의 청원서와 서명운동, 대중에게 석궁사건의 본질을 알려내는 일 등 석방운동에 매진하기로 하다.

14

❿ 용산 미군기지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공동 주최로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 대북침략연습 규탄대회'를 열다. 이날 무건리 주민 20여명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탄기자회견에서는 '대결정책 폐기하라', '전쟁연습 중단하라', '공동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에 이어 최영준 다함께 활동가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에 이어 이원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평화실현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인근 미군기지와 국방부 건물을 향해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를 마무리하다.

16

❻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범야권 4당과 시민사회단체 각 대표자들은 '남북관계 위

기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제1차 회의를 열다. 시국회의는 이날 민주당 정세균, 민노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노회찬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계 인사 총 797명의 명의로 된 대국민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다. 참가자들은 MB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지금 키리출브/이글 한미군사훈련 등과 북한의 소위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해소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이밖에도 민주당 원혜영 조정식 박지원, 민노당 홍희덕 곽정숙 의원과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도숙 전농 의장,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 동아특위 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209호 우리의 주장보심)

- ❶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삼성일반노조의 'IMF외환위기시 삼성생명 기만적인 구조조정폭로 및 노동자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다. 무노조경영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삼성생명은 95년 IMF를 맞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한 삼성생명의 부당한 노동자탄압 사례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해고자 이재익씨와 윤병목씨의 탄압사례 발표 후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의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의 '무노조경영'의 철폐와 강제사직 시킨 1700여명의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❷ 영등포구치소에 전여옥사건관련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정이부산민가협대표를 면회하다. 이정이석방대책 위에 함께하여 양심수후원회는 매주 월요일 이정이대표의 면회를 담당하기로 하고 부당하게 갇혀있는 이정이대표를 찾아 격려와 회원들의 염려하는 마음을 전하다.
- 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21차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제2차모임이 있었음. 모임에서는 20차년도 사업평가를 하고 일꾼 선임문제, 모범회원 선정 기준 등을 논의 확정하다. 김규철 김영옥 박중기지도위원, 김지영 김호현 모성용 김동원 안병길 소수영 김혜순 임미영 권오현 등 함께하다.
- 18** -----
❹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민가협, 유가협, 한국진보연대회원 등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가협조순덕 전상임의장 구속영장 청구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정책위원장 사회로 조미영 민가협 간사

의 경과보고에 이어 권오현 민가협공동의장의 구속영장청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여는말,

- ❺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정동익 사월혁명회상임대표(동아특위 위원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다. 조순덕 전상임의장이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되자 참가자들도 함께 옮겨 조의장을 면회하고 격려하다.(양심수후원회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권오현 함께함) 한편 남부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조순덕 전상임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 ❻ 국방부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의안 보고자료에서 이북이 '미사일 발사에 이목을 집중 시킨 가운데 NL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히다.
- ❼ 이북<노동신문>은 '반민족적인 북남관계문제국제화 책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정책'의 실패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명박 패당이 그로부터 출로를 외세의 준에서 찾으면서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3가지 사례를 들다. ①외세와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추악한 사대매국행위 ②외세의 비호밑에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저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소동 ③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인 우리를 모함하고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 대결광대극으로서 그것은 다름아닌 북침전쟁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다. 끝으로 신문은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문제의 국제화 책동의 본질적 내용은 '친미 친일공조' 라며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 19**
❽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민가협과 한국진보연대 유가협공동으로 "전여옥사건관련 민가협조순덕 전상임의장 구속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 결정 결정 조순덕 민가협 전상임의장의 구속을 규탄하다. 조미영민가협간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권오현공동의장의 여는 말 임기란 전의장오창이인권 실천연대사무국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배은심유가협회장 등 부당한 구속에 대한 규탄발언과 박영옥 민가협어머니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가협 유가협 양심수후원회원 등이 오전 오후에 걸쳐 조순덕 전의장을 면회하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다 김호현 모성용 송창학 임미영 권오현
- ❾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민가협 747회 목요집회를 열고 조순덕 전상임의장의 즉각석방을 촉구하다. 서경순 전

상임의장 권오현 공동의장 오창익 인권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 등이 조 전상임의장의 구속은 민가협 탄압이고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이라며 조순덕, 이정이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다.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이 18일 베이징의 국가대극원 가극극장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북 중 국교수림 60년을 맞아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원자바오 중국총리와 김영일 북 총리가 모두 ‘조 중 친선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두 나라 관계의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하다. 개막식에는 북측에서 김영일 내각총리, 김태봉 금속공업사, 김창직 농업상, 리용암 무역상, 강승스문화상 등이 참가함. 중국측에서는 원자바오총리와 양제츠 외교부장, 천더밍 상무부장과 문화부장 등 관계부분 일꾼 등 각계군중이 참가했다고 하다. 한편 김영일 총리는 19일 인민대회당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예방할 예정이며 이보다 앞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장장을 만날 것이라고 하다. 김영일 원자바오 양국총리 회담에서는 최고지도부 상호방문과 북핵 6자회담 재 개방안, 국제 및 지역문제 등 공동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나눔.

<문화일보><연합뉴스>와 <AP><뉴욕타임스>등은 지난 17일 북중접경지역에서 취재중이던 미국의 한 인터넷방송사소속 기자 3명이 두만강을 건너 북측에 들어갔다가 남자스텝 1명은 달아나고 중국계인 로라 링과 한국계인 유나 리는 북측 경비병에 붙잡힌 것으로 보도하다.

서울 중앙지법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촛불시위, 이랜드매장점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여 이날 이위원회 출소하다.

20
영동포 진보연대 회의실에서 조순덕 민가협전상임의장 석방을 위한 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자 모임을 갖고 대책기구로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석방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 또한 23일 헌법재판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로 등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다. 참여단체로는 한국진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단체연설회의, 인권시민실천연대, 유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통자, 민주노동당, 사월혁명회, 불교인권위원회, 통일문제연구소 등이 참가의사를 표명하다.

진보연대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남측본부 3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 2009사업계획, 부설기구<미군범죄신고센터>설치문제 진상조사 사업 및 연대사업문제 <교육자료 발간>등 논의하다.

용산 순천향 병원에 입원 폐암투병을 해오신 손영심 선생님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뵙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선생님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스런 모습이셨음. 아드님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오늘 넘기시기 어렵다는 병원측 말에 따라 만일의 일에 대비하다. 김영승 선생님과 노수희의장과 함께 했고 정관호선생님도 병실을 찾아오셨음. 병실을 나와 장례예식장으로 용산참사 민소참배와 유족을 위로하고 대책위 일꾼들을 만나 격려하다.(권오현)

21 -----

이북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불신과 대결에 환장한 패륜아들의 생떼질’이란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감히 우리의 위성발사 준비를 ‘미사일발사’ 준비라고 우겨대는 것은 평화적 우주과학연구의 합법성도 모르는 정치시정배들의 무모한 소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사이트는 “온 거리는 민족의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앞당기며 우주에로 당당히 진출하는 우리 공화국의 장거리를 민족적 경사로 찬양하면서 위성의 성과적 발사를 기원하고 있다”면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미국에서 조차 이번에 우리가 발사할 인공지구위성에 대해 공식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평화적인 위성발사준비를 애써 부정하며 쓸개 빠진 ‘미사일발사’ 타령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고 면박했다.

카리풀브/독수리 연습기간 북측에 고대로 차단되었던 군통신선이 이날부터 회복된다. 북측은 20일 남측이 통보한 출경(입북) 350명, 입경(귀환) 461명 중 출경 346명, 입경 461명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오다.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9일과 13~16일, 20일 등 3차례 개성공단 출입경이 전부 또는 부분 차단되고 있었음.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곧 체제대결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나 북남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노동신문>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담화는 지난해 유엔에서의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 방한시 북인권 문제에 공조를 요구한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북인

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점을 들다.

- ❶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순덕 전민가협상임의장을 면회하다. 토요일을 맞아 기족면회시간을 맞아 수척해지셨지만 웃음으로 연신 온 사람들을 위로해주시다. 어머니의 구속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 머지 않아 석방될 것이라고 격려하다. 동생 은덕님과 아드님 이영 윤달임어머니 임미영 함께 하다.

22

- ❷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3월 산행의 날로 이날 도봉산에 올라 시산제를 지내다 모두 24명이 함께 하여 도봉산입구-통일교-능원사-도봉사 등을 거쳐 보문능선의 천진사 갈림길 근처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점심식사, 소개시간, 정세보고 등이 있은 다음 이규재 범남본의장과 범민련성원들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의장은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참가자 하산하고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김재선 산악대장등 남은 회원들을 우이봉에 올랐다가 우이능선-우이동입구로 내려와 뒷풀이를 하면서 박희성 선생님 76세 생신을 축하해드리다(산행기보심)

- ❸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진보연대 2기 출범식이 열리다. 전국에서 온 2000여 소속단체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각 지역, 부문등의 특색있는 참가소개가 있었고, 본 대회에서는 정대연 집행위원장 사회로 1기 진보연대를 이끌었던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소개되고 인사말을 했으며 오종렬 상임고문은 2기 진보연대를 이끌어갈 상임대표로, 이규재 범남본의장, 한도순 전농의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강실 여성연대대표, 이원기 5기 한대련의장 등 각 부문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소개된다. 상임대표들의 각부문대표로서 정당, 단체 성격에 맞는 결의발언이 있고 민주노총비대위 임성규 위원장이 굳건한 연대와 빠른 시일안 정식 참가할 것을 결의하는 연대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공동대표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다. 결의문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실현, MB 악법 처리, 독재의 그림자제거, 6.15 10.4 선언이행, 2010년 이명박 정권 심판, 2012년 자주·민주·통일의 대도약을 기필코 성취할 것을 다짐하다.

- ❹ 남대문 경찰서는 YTN 구본홍 사장의(낙하산인사) 출근저지 등 혐의(업무방해)로 임금 단체협상결렬에 따라 파업을 앞두고 있던 노동면YTN노조 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 위원장, 입장혁돌발영상팀장, 조승호 기자 등 네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임이 드러나. 이들은 지난해 7월 대통령 바이 송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낙하산 사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받고 있었음.

YTN노조는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벌이겠다고 하다.

23

- ❶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공동으로 시민단체 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평계로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화 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검토 방침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어오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의 취지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엔해양법 협약 87조는 공해상에서 해적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건 검색할 수 없는 자유항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PSI는 참가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통航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PSI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다. 아울러 "PSI는 정전협정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2조 13항),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2조 14~16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PSI는 88개국이 정식 참여해 핵·미시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을 차단하는 훈련으로,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까지 총 8개 항 중 △역내 차단 훈련 때 물적지원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지원 △정식 참여의 3개 항은 유보한 채 읍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❷

- ❷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농민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단체협의회는 한-EU FTA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농민단체들이 협상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한국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즉각 협상 중단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350만 농민희생 담보로 한-EU FTA를 즉각 폐기하고, 모든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다.

❸

- ❸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석방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조순덕 전의장 석방을 촉구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기자회견을 열다. 오창의 인권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 사회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여는 말,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석방촉구 발언, 이영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❹

- 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위원회 13층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의견표명'을 발표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 조직 축소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인권위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이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긴급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다. 지난 3월 20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정원과 조직을 21%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했으며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현행 5분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하기로 하다. 행안부는 이 방안을 26일 차관회의에서 31일 국무회의에 상정추진할 예정임.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우주발사체로 발사할 경우 WMD(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차원에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PSI전면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음.

24
● 만남의 집에 계시는 출소장기수 박희성 선생님께서 75회 생신을 맞아 조촐한 생일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출소하신 후 처음으로 생신상을 받은 감회의 말씀으로 함께 한 사람들이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지만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하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축하주를 들며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통일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상봉 김영식 권오현 모성용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 용산 국방부 앞에서 무건리훈련장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주민들 주관으로 '무건리강제토지수용강행규탄집회'가 열리다. 주병준 무건리주민대책위원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오현리주민들을 상대로 발부한 약식명령서를 불태우며 정부에 대한 불복종 의지를 내보인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으려는 국방부와 육군의 기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강제수용 저지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하다. 모성용

● 2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축소 철회 공투단은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인권위 조직 21% 축소 최종통보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농성 및 행정안전부장관 그림자 투쟁을 선포하다. 구교현 한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변경택 부산공투단 상임대표, 배여진 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팀장 등이 규탄발언을 함.

통일부는 25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공동 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7명 중 6·15 남측위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최영목 공동사무처장(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의 방북을 국가안보상,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를 감안해 불허한다'고 통보해오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권기훈 판사는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노종면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현덕우 전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의 영장 청구는 기각하다.

● 용산 참사 항의집회와 관련,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노동해방철거연대 양해동 의장을 서울 구치소에서 장소이동접견(특별면회)하다. 양해동 위원장은 부당한 구속에 항의단식투쟁을 했었고 변호인 없이 스스로 자기변론을 한다고 하다. 양 위원장은 용산 살인진압에 분노하며 권력과 가진자들의 횡포와 탄압 살인행위를 규탄했음. 정신적으로 강인했기에 오랜 단식에서도 건강은 나빠보이지 않았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전철연 고천만 전의장 권오현 함께 했음.)

25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정부가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최영목 공동사무처장(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한 데 대해 "남북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서는 "정부가 유독 민간의 사회문화교류에 장애를 만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히고 "통일부가 기왕의 교류협력 활동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면서 "우리는 특히 이런 흐름이 현인택 장관 취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지적하다.

● 검찰은 이날 밤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이춘근 피디를 마포 집 앞에서 부당하게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하기로 하다.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4명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일이 2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들다. 이

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할 뜻을 밝히다.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은 “유가족들 또한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드나’며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다.

- ❶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으로 ‘검찰의 <PD수첩> 이춘근 PD 부당한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탄압 중단하고 <PD수첩>에 대한 수사중단, 체포된 이춘근PD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민언련대표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잡아먹었다’며 검찰의 민주주의 유린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하다.
- ❷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8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현공동의장의 언론탄압 민가협 탄압등을 규탄하는 여는말 서경순 전상임의장의 이명박정권인권탄압과 조준덕 이정이 구속규탄발언이 있었음.
- ❸ 남대문로 YTN노조 농성장 격려방문하다. 마침 결의대회가 진행중이었음. 이종걸의원의 격려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과 김호현부회장도 노종면위원장의 부당한 구속을 규탄하고 YTN노조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하다.
- ❹ 국가인권위 정원과 조직을 21% 축소하는 내용의 최종 통보인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통과된다. 지난 20일 최종통보이후 1주일도 되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 독립성 공투단은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권위조직 축소 차관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축소철회를 위해 끝장투쟁을 선포하다.
- ❺ 이북의 인공위성발사준비와 관련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순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모든 과정이 원래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27

- ❻ 빨치산 여전사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순영심 선생님이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해 오시다가 27일 새벽 2시

평생염원이었던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모셨고 4일장으로 하여 30일 장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조화를 보내드렸고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권오현이 문상다녀왔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후원회 소식209호 보심)

- 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연 부장판사)심리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당사자 자기변론이 진행된다. 이날은 최한우 집행위원장이 6.15학원 등에서 강의한 자료들에 대한 변론으로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에 관한 컴퓨터그래픽 도표로 해설하다. 문경환 정책위원장도 6.15학원에서 강의했거나 저서 등 내용에 대해 우리민족의 근현대사를 강의하듯 해설하다.

- ❹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유엔인권이사회(3.2~27)는 26일(현지시간) 위ट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북인권상황결의안을 표결해서 찬성 26 반대 6 기권 15표로 통과된다. 이명박 정부는 동족을 혈뜯는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노릇을 하다.

- ❺ 검찰은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25일 밤 체포했던 <MBC>의 이춘근 ‘PD수첩’ PD를 이날밤 석방하다. 이춘근PD가 체포되자 한국PD연합회와 PD연합회 광주전남본부, <문화방송> <교육방송> <CBS> <OBS> PD협회, 한국 독립PD협회 등은 26~27일 줄이어 성명을 발표, 검찰의 이춘근PD체포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했음.

28

- ❻ 3월 25~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 해외공동위원장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9돌기념행사를 남·북·해외가 분산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이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번 공동위원장회의에는 남측에서는 김상근 상임대표와 이석태공동대표 정인성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이 북측에서는 안경호위원장과 비롯 양철식 사무국장 김영철 박성일 최경철씨 등이 해외측에서는 과동의 공동위원장과 조성오 사무부국장 2명이 함께하다. 남측의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과 최영옥 공동사무처장은 통일부의 불허조치로 참석하지 못하다.

❽

- ❽ 용산참사 남일당건물 앞에서 이명박 정권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는 ‘용산살인진압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제1차 범국민고발인 대회’를 열고 3월 초부터 진행된 범국민고발운동에 15,403명이 참가했다고 1차집계를 발표하다. 이 고발운동은 ‘2009년 1

■ 이전일이 있었어요

월 20일 용산철거민 망루농성진압에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찰과 용역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용산 4구역 철거민 등 6명을 사망케 하고 농성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고발한다'며 김석기 전서울지방경찰청장 박동산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책임자들과 용역업체 책임자들 및 그 업체 직원들이 고발대상이고 업무상 과실상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을 들었음.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이 함께 하여 문정현 신부가 낭독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을 포함하여 장례비마련 유기족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큰 힘을 보내달라고 하다. 노래패 '아줌마' 민중기수 박준씨등 문예공연도 있었음. 양심수후원회도 고발운동에 함께 하다.

29

❶ 스티븐 보스워스 미대북정책특별대표는 28일자(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지도자(The leader = 김정일국방위원장)와 만나고 싶고 또 그 동안 접촉해왔던 더 높은 급의 북외무성 고위인사들과 접촉하려 한다'고 말하다. 이어 '6자회담 과정을 매일 체크하는 일보다는 북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좀더 폭넓은 정책 이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북핵) 문제는 미국 뿐만아니라 한국 일본 등도 포함한 역내국가들과 관련된 침략적 긴급성이 있는 만큼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다.

30

❷ 영등포구치소로 이정이 조순덕어머니를 면회하다. 두 분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준비를 성실히 하고 계시고 또 바깥에서의 두 분을 성원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시다. 김호현 임미영

❸ 전쟁시기 입산하여 4년이 넘게 여성빨치산으로 활동 하셨던 고 손영신선생님의 유골수목장이 선생님이 활약하셨던 전남광양 백운산에서 있었음 권오현 모성용 함께 하다. (후원회소식 209호 보심)

❹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 인력을 21% 줄이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8명에 16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내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❺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 1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3.2-27)에서 채택된 북인권결의는 EU와 일본이 분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마다 벌이고 있는 모략책동의 산물'이라 규정하고 '상권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권유

린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 상권이 적대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시비질을 일삼는 시정배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결의'를 우리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❻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기진 전한청의장을 면회하다. 이날 면회는 윤기진의장의 어머니와 함께 하였는데 양심수후원회가 4월에 21차 총회를 맞아 총회를 축하하는 격려사를 부탁하다. 윤기진의장은 후원회 활동에 깊이 공감하며 흔쾌히 격려사를 써주겠다고 하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어린 두 딸의 예쁜 모습을 보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밖에서 열심히 통일운동에 임하고 있는 부인 황선님에 대해서도 서로 안부를 주고 받다. 마치고 윤기진의장의 어머니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을 나누다. 김호현 임미령

❽ 이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PSIDP 정식 참여방침발언과 관련 '이명박폐당이 이 현실을 망각하고 대량살상무기화산방지구상(PSI)에 참가한다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폐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❾ 후원회소식 209호를 회원 996부 해외17부 양심수 84명에게 발송하다. 또 영치금과 '민족21'을 전국의 양심수들에게 발송하다.

31

❻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악안 제안과 관련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속, 기소되어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이정이 부산 전 민가협대표와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을 민가협 회원과 부산대책위원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면회하다. 두분의 검찰의 일방적 기소내용에 맞서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지키고 잘못된 기소 내용을 법정에서 폭로 규탄하겠다고 하다(권오현 외) 마치고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은 남부지원앞에서 조순덕 전 상임의장의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